

정(미운정 고운정)의 심리적 구조, 행위 및 기능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¹⁾

최상진 · 김지영 · 김기범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한국인들의 우리는 남에 대해 배타적인 우리이고, 가족같은 친근하고 끈끈한 관계이며,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이다. 이러한 우리성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정으로, 우리성과 정은 상호혼합관계로 정이 우리성이고 우리성에서 정이 느껴지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한국인들은 정이 깊이 든 관계를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다'는 말로 표현한다. 또 한국 속담에 '정 각각 흥 각각'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우리성-정관계에서 상대의 단점이나 나쁜 행동도 모두 수용할 수 있음을 말한다. 한국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어려운 어른으로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권위를 내세우며, 이로 인해 며느리는 불만을 느끼고 자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갈등과 싸움이 잦다. 그러나 이들은 헤어질 수 없는 불가분 관계, 당위적 우리성 관계로 묶여 수 십 년을 같이 살면서 한 가족이라는 공동운명체 의식을 공유하고 외부의 어려움이나 남으로부터 당하는 피해를 공동으로 대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부간에는 갈등과 화해, 우리편 아껴주기의 정을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쌓게 되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다'는 회고적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이 가지는 심리적 속성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미운정 고운정을 바탕으로 한 정 의 구성요인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정 의 표현행위와 기능간의 구조적 관계성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과 정 의 표현행위 및 정 표현행위와 그 기능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이 든다'함은 아껴주는 마음을 담은 행위 등을 수반하게 되고 그러한 행위는 든든하고 의지가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도심의 길거리나 대학의 교정에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서구간에 한 가지 특징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서구에서는 홀로 걸어 다니는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의 무리 또는 집단으로 걸어 다니는 사람보다 많은 반면, 한국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두 명 이상이 무리나 집단을 이루어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다. 좀더 구체적인 예로 대학의 교정에서 교수들이 점심시간에 식당에 갈 때 서구의 교수

들은 개별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나 한국의 교수들은 식당에 가기 전에 미리 같이 갈 약속을 하고 만나서 식당을 간다. 물론 서구의 교수들이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자리를 하는 경우는 흔하나, 이것은 한국의 교수들처럼 미리 약속해서 만나고 식당을 향해 함께 가는 것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전자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식당엘 갔는데 우연히 만나 자리를 함께 했다는 점에서 특정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의도성이

1)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특정기초연구(1-521-001-3)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전제되어 있지 않다. 후자의 경우는 미리 계획을 하여 함께 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사람을 만날 의도성이 전제되어 있다.

여기서 한국인들이 특정한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함께 걸어가고 함께 식사를 하는 행위의 기저에는 서로 가까운 사람을 사귀어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인들이 함께 만나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어떠한 기준도 없이 무작위적, 무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 '우리'라는 집단으로 묶여질 수 있는 소지나 단서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선택하고 피선택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출신학교, 고향과 같은 연고유대성 우리편 단서가 있거나 이해관계의 합치, 생각이나 뜻에서의 동질성과 같은 심리-사회적 내집단화 유인변수에서 우리편 형성에 유리한 사람들을 선택하고 피선택되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한국인의 '우리집단 만들기'는 단순한 우리짓기가 아니라 '우리집단 구성하기'로 특징된다. 한국사람들은 일상의 대화에서도 '나'라는 말보다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쓴다(최상진, 1997b; 최상진·김기범, 1999b, 1999c; Choi, 1998; Choi & Choi, 1994; Choi & Kim, 1999a, 1999b; Choi, Kim, & Kim, 1999). '우리 학교', '우리 집', '우리 고향' 등은 물론 '우리 마누라', '우리 집사람'이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은 자주 사용한다(최상진, 1997b; 최상진·김지영·김기범, 1999a; Choi, 1998; Choi & Choi, 1994; Choi, Kim, & Kim, 1999).

그러나 한국인의 우리는 서구의 우리와 기본적인 측면에서는 유사하나 서구의 우리라는 개념 그 이상의 함축이 우리라는 개념과 말속에 있다. 한국인의 우리는 타집단에 대해서(against) 위치한 '우리편 우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타집단 배타성 우리'이다(최상진·김기범, 1999b). 한국말에 영어의 'the other person' 혹은 'group'에 해당되는 말로 '남(들)'이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남이라는 말의 뜻은 영어에서처럼 단순히 '우리밖에 있는 타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나 우리와 분명히 경계지워져 있으며 이해관계나 동기 또는 생각에 있어서 우리와 다른 타인 또는 타

집단임을 함축한다. 따라서 한국사람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남이라고 칭할 때 자기를 그 사람 또는 그들로부터 분리시켜 떼어버린다거나 또는 비호의적 관계로 규정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기 때문에 남으로 불리는 사람은 불쾌한 감정을 갖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한국인의 우리는 단순한 우리가 아닌 '내 편, 남의 편'을 대치, 대비시키는 '편가르기식 우리'이다(최상진·김지영·김기범, 1999a; Choi, Kim, & Kim, 1999).

한국에서 비교적 장기간 체류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편가르기를 좋아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또한 서구인들은 한국인에 대해 두 가지의 상반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바, 하나는 '불친절하며 쌀쌀맞다'는 견해와 이와 상반된 또 하나의 견해는 '친절하고 인정이 많다'는 관찰이다. 이러한 상반된 경험은 그 서구인들이 '우리편 집단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경험했느냐' 아니면 '자신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남의 편 사람들 또는 일반 사회적 관계속의 사람들을 경험했느냐'에 따라 한국인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불친절, 쌀쌀의 경험은 남의 편 사람과의 경험이거나 서로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의 경험이라면 친절과 인정의 경험은 우리편 구성원들과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최상진·김기범, 1999c; 최상진·김지영·김기범, 1999a; Choi & Kim, 1999a; Choi, Kim, & Kim, 1999).

한국인들이 '우리집단 만들기 지향성'이 강하고 동시에 '타집단 배타적 우리편 우리 만들기' 성향이 왜 높은가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우선 여기서 기능적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인들은 우리편에 소속될 때 긍정적 이점을 부정적 이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혼자 개별자로 있는 것보다 우리편에 소속되는 것이 더 많은 장점이나 이점이 있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최상진, 1997b; 최상진·김기범, 1999c; Choi, 1998; Choi & Kim, 1999a). 이와 관련된 간접적 증거로 한국인들은 무슨 연유에든 홀로 있고 홀로 행동하고 홀로 걸어가고 홀로 식사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외로운 사람이라거나 불쌍한 사람이라는 측은

한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시각 틀에서 보면 삼삼오오 무리를 이루어 걸어가거나 식당에 가는 행동은 우리편을 만들기 위한 동기와 더불어 남으로부터 고립된 외톨박이, 측은한 동정을 받는 사람, 또는 힘없는 사람으로(우리가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동기가 복합된 행동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캐나다에서 성장해서 캐나다의 대학을 다닌 한 한국계 캐나다 학생 K군이 한국의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대학생들과의 접촉에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본다.

... 같은 과의 친구들이 한번 모이자고 해서 그 곳에 나갔단다.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서클을 만들자고 친구들이 이미 합의하고 K군을 초대했다고 했다. 이 제안에 K군은 “무엇을 하는 서클이냐”고 물었다. 대답인즉 “그저 좋아서 서클을 만들자”고 친구들이 대답했다. K군의 질문인즉, “캐나다에서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 서클을 만드는 것이 통례인데, 한국에서는 목적도 없이 서클을 만드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친한 사람들끼리 서클을 먼저 만들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는 다음에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대답했다(최상진, 1997b, pp. 740-741).

여기서 한국의 동료들이 서클을 만들자고 한 배경은 서클을 명목으로 함께 만나 우리편을 만들자는데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대학생들이 서클을 만드는 배경에는 공동의 관심사나 특정 목적 지향적 활동을 위해 상호협력한다는 차원을 넘어 또는 그러한 차원보다 선행하여 우리편 집단을 구성하고 개발하는데 동기가 있다.

이에 대한 최상진 등의 연구(1990, 1993, 1997b, 1999c)를 보면 캐나다 대학생들은 목적이나 흥미, 관심 등이 동일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을 서로 돕기 위해 협동할 때 우리라는 경험과 범주지칭을 갖게 된다. 이러한 우리성을 ‘공통성 공유우리(distributive we-ness)’라고 칭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대학생의 경우는 일 자체나 흥미, 취미 등에서의 공통성보다는,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성과 상호의존성이 경험되고 인식

될 때 우리의식을 느끼며, 이러한 집단을 진정한 의미의 우리집단으로 칭한다. 이러한 우리성을 ‘관계성 우리(relational we-ness)’라고 칭할 수 있다. 앞의 서클의 예에서처럼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맞는 우리집단이 먼저 구성된 후에 어떤 일이건 함께 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한국인의 우리에 대한 표상을 보면, ‘하나됨’, ‘동질성’, ‘상호의존성’, ‘결집유대성’, ‘다정성’ 등으로 나타난다(최상진·박수현, 1990; Choi, 1998; Choi & Choi, 1994). 이러한 표상내용들은 한국의 전통적 가족관계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의 우리는 ‘가족관계성 우리’로 특징된다. 그러나 일반사회관계에서의 우리는 가족성 우리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대화에서 한국인들은 우리라는 말을 자주 쓸 뿐만 아니라, 특히 가까운 대인관계에서 우리를 재확인하고 강조하는 말을 자주 쓴다. 예를 들면, 한국의 한 정치인의 일화에서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이 우리사회에 비판적으로 회자된 적이 있다. 이 일화는 지역감정이 팽배한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한 지역의 정치인이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들 앞에서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을 함으로써 상대지역에 대한 적대감과 더불어 자기지역의 국회의원들간의 우리편 의식 다지기를 불러일으켰다는 일화이다.

또한 친구관계에서도 우리편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때 한국사람들은 ‘우리끼리니까 말하지만’이라는 말을 잘 쓴다. 이처럼 우리편이 될 때 한국인에게는 ‘합리성의 논리’, ‘사회정의의 논리’, ‘공공성의 논리’는 약화되고 ‘감정(passion)의 논리’, ‘우리편 의리의 논리’, ‘사집단 이해관계의 논리 및 사적논리’가 우세한 정신체계(mental set)와 담론(discourse)의 논리로 자연스럽게 감응된다(최상진·김기범, 1999c; Choi & Kim, 1999a). 한국의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에게 ‘우리편이라고 느껴지는 후보가 누구입니까’라는 문항이 다른 객관적 능력을 묻는 문항, 예를 들어, ‘국정수행 능력, 지적인 능력, 리더쉽 등의 문항보다 현격히 높은 투표행동 예언력을 나타내 보였는 바, 이는 우리편 사람에 대한 한국인의 ‘편의식 심리’가 강하게 작용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최상진, 1998, 97 제15

대 대통령선거 투표형태, 한국갤럽).

이러한 한국적 문화상황에서 한국인들이 '우리편에 소속되지 않으면 송장이 된다'는 생각은 매우 합리적인 귀결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국인들이 우리 및 우리라는 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표상을 보면 한국인들의 우리가 왜 이처럼 강력한 응결력을 갖는가에 대한 심리적 기저를 이해할 수 있다. 최상진 등(1990, 1994, 1997b)에 의한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weness)'는 '하나됨(eness)', '일치성(sameness)',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 '결집유대성(solidarity)'의 표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우리가 된다'함은 일심동체(一心同體)가 된 가족관계를 뜻하며 따라서 그 속에서는 정의(正義)나 개성, 다양성, 이견(異見), 논쟁 등이 바람직한 행동특성으로 수용되지 않는다. 한국의 가족은 한마디로 '풍량을 헤쳐 나가는 공동운명의 조각배'로 비유되며 이 속에는 'We are in the same boat'라는 일치단결심이 절대 우위의 가치로 통용된다(최상진, 1997b; Choi, 1998). 이러한 표상은 한국인이 역사·문화적으로 구성한 '우리표상'이고 믿음이며, 규범이다. 또한 이러한 표상은 실제로 실천여부를 떠나 한국인들이 머리와 가슴속에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최상진 등(1990, 1993, 1997b)은 이를 '한국인의 우리성'으로 명명한 바 있다.

이러한 우리성 표상은 대인관계에서 우리편을 신호화하거나(signify) 변별하는 단서를 접할 때 즉 현재 우리편이거나 앞으로 우리편이 될 수도 있는 단서가 있는 사람이나 상황에 접할 때 자동적으로 개입되는 전제적 또는 함축적 정신체계이다. 한국인들이 길거리에서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로 언쟁을 벌이다가 상대가 같은 고향사람이거나 같은 고등학교의 선후배 관계임을 알게 될 때 두 사람의 행동은 화해와 상호 이해의 양식으로 급격한 극적 전환을 하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 이는 남 대 남 정신체계에서 우리성 정신체계로의 전환을 뜻하며, 이러한 전환은 같은 학교 선후배이거나 같은 고향사람이라는 우리성 신호 단서에 의한 발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우리성신호단서에 의한 우리성발화를 기대하여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각종 우리성 단서, 예를

들어 고향이나 출신학교, 군동기 여부, 성과 본관 등을 심지어는 서로 함께 알고 있는 친구 찾기 등과 같은 우리성 연고유대 지표들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이러한 우리편 단서의 상호 확인은 우리성 정신체계의 발화를 통한 우리성 양식의 호혜적 상호작용을 조장하고 보강시키기 위함이다(최상진·김지영·김기범, 1999a; Choi, 1998; Choi, Kim, & Kim, 1999).

한국인의 우리성과 관련하여 발견되는 또 하나의 특성은 우리성 단서가 상호 확인되었을 때 우리성 행동을 서로 상대에게 해야한다는 규범적 인식과 기대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12년간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고교 동창생이 결혼을 한다고 할 때 그의 결혼식에 당연히 참석하고 부조금을 내야한다는 의무감과 더불어 상대편에서의 기대감이 관습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참석하고 싶지 않은 결혼식에도 참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화·관습적 규범은 한국인의 우리관과 밀접히 관련된다. 한국인들은 한 번 우리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가 실제로 우리성 접촉의 지속이 없는 경우까지도 지속된다는 관념적 우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념적 우리성을 실질적으로 보강해 주는 것은 우리성관계의 형성에서 관계의 부착 및 밀착에 시멘트 역할을 하는 대인간의 정(情)이다(최상진·김기범, 1999b).

우리성과 정과의 관계를 콘크리트 구조물에 비유하면, 우리성은 구조물의 거푸집과 철근에 해당되고 정은 거푸집 속과 철근사이를 메꿔주는 콘크리트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소재 중 어느 하나가 없거나 부족하면 구조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성이라는 거푸집과 철근 속에 정이 채워지지 않으면 또는 역으로 콘크리트같은 정이 없이 거푸집과 철근만 존재한다면 그 구조물은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구조물에 콘크리트를 빈 공간 없이 채웠을 때 건물이 튼튼한 것처럼 우리성관계도 정이 뻘뻘하게 들어차야 우리성관계는 견고화되고 오래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 정으로 다져진 우리성관계일수록 그 지속 기간이 길다. 즉 정과 우리성은 상호혼합되어 있어서, 정이 우리성이고 우리성에서 정이 느껴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최상진·김지영·김기범,

1999a; Choi, Kim, & Kim, 1999).

한국에서는 가족간에도 같이 살아야 정이 붙고 고부간에도 같이 살다가 자식을 분가시켰을 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정이 오래간다고 믿는다. 흔히 며느리를 한 번도 데리고 산 경험이 없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기 집을 방문할 때 손님처럼 느껴진다고 한다. 여기서 손님처럼 느낀다는 말은 남처럼 느껴진다는 말이다. 이는 고부간의 관계에 정을 쌓을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한국문화권에서는 당위적인 우리성관계이다. 즉 가족이라는 연줄 때문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다시 말해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처럼 불가분의 관계속에서 함께 그것도 한 집에서 몸을 부딪히며 살아가는 과정속에는 고부간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그러한 갈등이 있다고 해도 분가를 하거나 심리적으로 단절된 상태로 갈라설 수도 없다. 따라서 갈등을 겪으며 표출하고 또는 참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김지영, 1999; 최상진·김지영·김기범, 1999a; Choi, Kim, & Kim, 1999).

이 과정에서 서로 상대의 나쁜 점, 천한 점, 미운 점, 비인간적인 점 등을 두루 경험하게 되고 또 이와는 반대로 좋은 점, 귀한 점, 고운 점, 인간적인 점 등도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고통스럽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한 삶의 역정을 거치면서 애증의 감정이 복합된 삶을 숙명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부관계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애증의 삶 역정이 시간을 더해 갈수록 이들간의 관계에서 우리편 인식과 우리성 자의식은 축적되어 가고 그 가장 극적인 형태는 시집살이 한 며느리가 분가를 했을 때 시어머니와의 삶을 회고하는 데서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대부분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 지지고 볶고 살면서 미운정 고운정 다들었다”고 말한다(김지영, 1999; 최상진·김지영·김기범, 1999a; Choi, Kim, & Kim, 1999). 이 말속에는 미운 점도 있고 고운 점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정이라는 한국적인 애착(attachment) 관계가 맺어졌음을 뜻한다. 사랑이나 행복이 이를 실제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는 느끼지 못하나 그 과정에 대한 회고적 반성에서 체험될 수 있는 것처럼, 정도 과거의

지나간 삶 과정과 사건에 대한 회고적 과정에서 구성되고 느껴지는 정서의 성격을 갖는다(최상진·김지영·김기범, 1999a).

부부간의 삶, 고부간의 삶, 한 방을 나누어 쓰는 형제간의 삶 등은 좋으나 싫으나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고 자신들의 사적인 제반 특성과 성격이 알몸으로 노출된 삶이며,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우리라는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며 동시에 하루 이틀이 아닌 수년 또는 수십 년을 참고 견디며 살아야하는 삶이다. 이러한 삶속에서 구성된 정관계는 단순히 고운정관계만이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이 실타래처럼 엉켜진 미운정 고운정이라고 특징되고 또 그렇게 부른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미운정 고운정의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않거나 충족시키는 정도가 적은 일반적 사회적 관계에서 정이 들었다고 말할 때에는 미운정 보다는 고운정 부분이 큰 고운정을 중심으로 일컫는 정이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미운 점이 나타나 보일 때 더 이상 우리성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크지 않으며, 따라서 고운정만을 쫓아 우리성-정관계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깊은 정, 두터운 정은 고운정 뿐만 아니라 미운정까지 함께 들 때 생긴다고 한국인들은 믿는다(최상진·김지영·김기범, 1999a; Choi, Kim, & Kim, 1999).

정(情)의 심리적 속성

한국 사람들은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정이 든다’는 말로 표현한다. 여기서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것은 정이 들으로써 결과되는 것이다. 즉 정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 가까워지고, 정이 깊어지는 과정을 ‘정이 쌓인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정은 관계접촉의 경험과 사건이 호의적일 때 누적되는 데에 비례해서 더욱 많이 쌓이게 되고 더 깊게 든다는 한국인의 믿음이 있다. 이때, 두 사람간의 관계는 ‘정이 든 관계’, ‘정이 들었다’로 표현한다. 여기서 ‘든다’는 말은 ‘정이 생겼다’는 말이고, 이때 정이 생기는 자리는 두 사람에도 생기고 관여된 두 사람간의

마음간 또한 이들의 마음속에도 동시에 생긴다. 이처럼 마음간 및 마음속에 정이 생겨 정으로 맺어진 관계를 친구, 부자, 부부 또는 연인관계라고 하고, 또는 더 폭넓게 '우리관계'라 부른다. 정으로 맺어진 관계를 광의로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부르기도 하는 바, 이는 정이 마음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의 속성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해 구성된 '마음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최상진, 1997b).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본성(마음씨)은 착한 것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마음은 스스로의 운행논리에 의해 움직인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본래 마음의 운행논리는 본인의 의지나 생각에 관계없이 자체적인 운행체계 속에서 작동되고 전개된다고 믿는다. 이와 관련해서, 마음의 운행원리는 자연발생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정이 마음의 일부분이라고 할 때 정의 본질이나 작동, 전개방식은 마음의 작동전개방식과 동일하다. 정이라는 한자의 본 뜻 속에는 '속마음'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는 정이 마음 중에서도 마음의 기본 속성을 충분히 가장 많이 반영하고 따르는 것을 함축한다. 인간의 마음씨가 본래 착하다고 믿는 바, 속마음은 착하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이러한 정의 착한 마음은 호의적 대인관계 속에서 자연적으로 발현된다. 또한 정이라는 한자어 속에는 '마음이 발동함'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은 '발동된 속마음'이기도 하다(최상진·김기범, 1999c; 최상진·김지영·김기범, 1999a; Choi & Kim, 1999a; Choi, Kim, & Kim, 1999). 그러나 이러한 속마음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접하면서 좋은 마음이 나쁜 마음으로 발현되기도 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발동되기도 한다. 이

러한 맥락에서 정은 세상살이를 하면서 혼탁, 오염되기도 한다. 또한 시대, 문화와 역사적 과정을 통해 정의 의미도 본래의 순수한 착한 본마음에서 세속화된 변형된 의미의 정으로 변질되어왔다. 지금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정은 세속화의 과정을 거쳐 현재의 한국인의 마음속에 형성된 현세적 의미의 현실적 정이다(최상진·김기범, 1999c; Choi & Kim, 1999b).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정은 두 가지 형태이다. 첫 번째는 관계적 정이다. 이것은 '누군가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생기는 정이다. 두 번째는 성격소질로서의 정이다. 그러나 정 그 자체의 속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정의 대한 개관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정의 일반적 속성은 영어의 '애정(affection)', '애착(attachment)'과 같다. 그러나 사랑과 같은 강한 감정은 아니라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felt emotion(emotional bonding)'이다. 정은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는 감정이자 회고적 성격을 가진다(최상진, 1997b; Harre, 1998 참조). 정은 두 사람의 관계성을 함축하는데, 예를 들어, '가깝다', '아껴준다', '서로 보호해준다'는 등의 관계성에 대한 인지, 생각이 감정과 연류된 것이다. 즉 정속에는 애정(affection)이나 애착(attachment)이라는 감정과 더불어 관계성을 함축하는 인지가 결여되어 있다.

정의 심리적 속성은 '아껴주는 마음', '동거역사성', '우리성 일체감', '허물없음'이다(최상진, 1997b, 1999c; 최상진·김의철·유승엽·이장주, 1997; 최상진·김지영·김기범, 1999a; 최상진·이장주, 1999; Choi, Kim, & Kim, 1999, 표 1 참조). 정이 드는 조건에 대한 범주(1차 연구)를 2, 3차 연구와 비교해 보면 2, 3차 연구의 제 1요인인 동고 동락(우리성 - 일체감)은 동일한

표 1. 정드는 조건 및 상황범주 비교

정드는 조건(1차 연구)	정드는 조건(2차 연구)	정드는 조건(3차 연구)
동고 동락	동고 동락	우리성-일체감
	아껴주는 마음	아껴주고 믿어주기
이해와 포용	상호 이해와 포용	상대에 대한 인간적 이해
허물없음	사적 밀착성	격의없이 대하기
장기 우리성 접촉경험(동거성/역사성)	동거 역사성	동거역사성

범주이고, 3차 연구의 제2요인인 아껴주고 믿어주는 2차 연구의 아껴주는 마음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제3요인인 상대에 대한 인간적 이해 또한 1, 2차 연구의 상호이해와 포용과 같은 응답범주가 존재하며, 제4요인인 격의 없이 대하기는 1차 연구의 허물없음, 2차 연구의 사적 밀착성과 유사하고, 제5요인인 동거역사성은 2차 연구 결과와 1차 연구의 정이 드는 조건범주인 장기 우리성 접촉 경험과 응답내용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정의 구성요건에서 동거 역사성과, 동고동락은 시공간적 밀착성을 의미한다. 즉 오랜 시간과 잦은 부딪침을 통해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는 감정이므로 불쾌한 특정 사건이나 행동으로 인해 상대가 정을 끊으려해도 끊을 수 없는 것이다. 정관계는 소위 인간적인 행동을 통해서 형성되는데 여기서 인간적 관계란 '지극히 사적이며 은밀하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거기에 대응할 줄 알고 옳고 그름을 떠난 의리의 관계이자 이성보다는 감정의 관계'이다. 정의 관계에서는 '정리(情理)'가 따로 있다. 이것은 '사리(事理)'와 구분되는 것으로 일반적 관계는 사리의 관계이지만 정관계는 정리의 관계이다. 정리의 관계는 '우리편 의식논리', 'passion의 감정논리', '사적인 정(情)·의리(義理) 논리', '이해관계 비타산의 논리', '우리편 정의 및 우리편 호혜(互惠)의 논리'인 반면에 사리의 관계는 '사회적 합리성의 논리', '이성의 논리', '사회공공규범의 논리', '이해관계적 타산의 논리', '사회적 정의 및 형평의 논리'가 우선한다(최상진·김기범, 1999b; Choi & Kim, 1999a).

이러한 정관계의 논리는 '인정 많은 사람'에 대한 한국인의 표상으로도 알 수 있다. 정은 착한 마음의 속성을 지닌다고 언급한 것처럼, 한국인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은 흔히 착한 사람을 말하는데, 이는 '인정(人情) 많은 사람'을 말한다. 인정이 많은 사람의 특성에 대한 질문에서 한국 사람들은 1)애타성, 2)인간적 연약성, 3)우선성(慈善性), 4)타인 관심성 등의 특성을 들었는데, 인정이 많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남을 사랑하고 도와주며(애타성), 남의 어려움이나 감정, 처지에 대해 감정 공감과 관심(타인 관심성)을 보

이는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특성만으로는 인정이 많은 사람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서구적 합리성이나 기독교적 박애주의 및 정의감에 근거한 자선적 행동이나 애타적 관심은 인정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비록 그러한 감정, 관심, 행동은 그 표현형에서 다른 바 없으나, 한국적 "인정 심리"는 이러한 합리성과 당위성이 내재된 자선 행위를 고마움의 차원이나 혹은 인위적인 인정의 차원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하나 내면적인 인정의 차원으로 전화시키지는 않는다(최상진·최수향, 1990).

그러한 자선행위와 고마움이 인간적인 개념인 인정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인간성이 연약하고 우직하며, 실속 없이 착하고, 혹은 미련해야 한다는 특수성이 요구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범주의 특성을 '인간적 연약성'과 '우선성'의 범주로 수렴하였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연약성과 우선성이 소위 한국인이 말하는 '인간적'이라고 하는 말의 본체일지도 모르겠다. 중요한 사실은 인정은 합리적인 자선보다는 이러한 보다 인간적인, 즉 비합리적인 인간 특성 속에서 발생하는 한국인의 특수한 사회 심리 현상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정관계의 정리와도 유사한 측면을 지닌다. 즉 한국인의 우리성이 정을 바탕으로 한 개념이라는 사실을 주시할 때, 한국인의 우리성은 곧, 합리적인 혹은 공식적 관계 속의 우리나라 서구적 사태 상황적 동질성에 기초한 우리가 아닌, 탈 합리적, 인간적 관계 속에서 정을 바탕으로 한 개인간의 인간 지향적 연계 단위(과업 지향적이 아닌)임을 알 수 있다(최상진, 1997b; 1999c; 최상진·최수향, 1990).

한국인들이 정관계를 맺기 원하고, 웬지 정이 가는 사람, 자신과 친밀-밀착관계인 배우자, 친구, 부모, 자식에게 원하는 관계의 질은 이렇듯 비합리적, 비타산적, 사적인 성격을 띠고, 이것은 예의와 형식을 넘어 서로의 미숙하고, 감정적인 시시콜콜한 장단점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게 되고, 볼 수 있게 하므로 자연, 갈등과 오해, 싸움과 화해의 굴곡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과 굴곡은 더러 관계의 악화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서로 예의를 차리며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공적 관계에서나 타인고통에 무감하고, 이기적, 이지적인 무정한 사람들(최상진, 1997b; 최상진·최수향, 1990)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편안함과 따뜻함을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속에서 정은 고운정의 한 축이 아니라 미운정 고운정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이란 말은 부부관계, 부자관계와 같은 가족관계 상황에서는 물론 봉우관계, 사제관계, 직장에서의 상하관계 등 다양한 인간관계의 맥락에서 두루 사용되고 있다. 심지어는 무르익은 연인관계마저도 '사랑이 깊어졌다'는 말보다는 '정이 들었다'는 말을 사용하며, 사랑이 식었거나 애증이 뒤섞인 부부관계에서도 흔히 '정 때문에 산다'고 말하고, 정이 깊은 관계를 말할 때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다'고 말한다(김지영, 1999; 최상진·김지영·김기범, 1999a; Choi, Kim, & Kim, 1999). 우리 속담에 '홍각각 정각각'이라는 속담이 있다. 대개 흥이 있으면 미워질 수 있다고 상정해볼 수 있지만 일단 든 정은 상대방의 흥이나 나쁜 점까지도 수용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긍정적으로 지각되게도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성인들의 일상대화에서 '지긋지긋한' 또는 '원수 같은' 남편이니, '바가지 굵은' 또는 '짐 보따리 같은' 여편네니 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부부들도 그저 헤어지지 않고 살아가며 그 이유를 물으면 '정 때문에 사는 것 뿐'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한국인은 '잘로 물 बे기'라고 말하지 않던가! 이규태(1990)는 김유정의 단편소설 <아내>를 인용하면서 '미우면 미울수록 싸우면 싸울수록 정이 착착 붙는' 부부 관계가 바로 한국형 부부 관계임을 말하고 있다. 또한 고부간, 시누이 율케간, 동서사이에서 잦은 다툼과 오해로 서로 앙숙 관계인 상대를 이야기 할 때, 한국의 나이든 아주머니나 할머니들은 '미운정 고운정'이라는 말로 그간의 관계 역사에서 파생된 감정을 단지 부정적이지만은 않게 규정하고 회고한다(김지영, 1999).

이러한 미운정 고운정이 형성되기 위해서 오랜 세월동안 정관계의 상호간에 서로 오고가는 정행동이 있는데 그러한 정행동과 정행동에 따른 감정은 다음

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한국인들이 정행동의 단서를 이야기 할 때, 흔히 '그 사람은 나를 아껴준다'든가 '나에게 신경을 써준다' 혹은 '나에게 잘 해준다'는 등의 표현을 한다. 이러한 정의 표현 행위는 지극히 은근한 무형의 행위들로 그러한 행동이 가지는 특징은 그 의미나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가를 딱히 꼬집어 말할 수 없거나 광범위하고, 두 번째로 행동에서 파생되는 감정적 특징으로는, 미운정 고운정의 정 표현행위에는 긍정적인 측면 뿐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남인 사람 즉, 정관계가 아닌 사람에 대한 일차적 감정과는 다른 질의 감정을 불러온다는 것이다(Cole, 1996; Gergen, 1997; Ratner, 1997 등 참조).

예를 들어, '네가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 사이에 어떻게 이럴 수가'라는 등의 표현을 한국인들은 친한 사이의 갈등, 오해 상황에서 흔히 하는데, 상대의 행동을 이같이 지각하는 의식 밑바닥에는 서로의 관계에 대한 일정한 기대수준이 어긋나는 것에 대한 서운함, 실망, 배신감, 원망이 있다. 우리성-정관계가 아닌 남남인 경우, 단지 무례하고 불친절하다는 단순 지각에 그치거나, 혹은 분노나 화를 야기하는 일차적 감정 수준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나를 무시한다', '막 대한다'는 둘간의 관계 조망, 회고 속에서 발생하는 이차적, 특수한 감정반응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즉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듯이 정이 깊으면 미움도 클 수 있는 이치인데, 미움의 뒤를 그간의 관계에 대한 조망과 자기조망에서 오는 서운함, 배신감이 따른다. 그러나 서운함이나 배신감, 실망이 그 자체로 관계의 파탄을 불러오는 '미움'과 같지 않고 '미운정'으로 승화되는데 정의 독특성이 있다. 결국 서로에 대한 실망도 정에서 나온 것이고 이후의 화해나 포용도 정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 속담에 '정에서 노엽난다'는 말이 이같은 맥락을 잘 설명하고, 미운정 고운정이 생성되는 과정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운정 고운정의 생성에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혈연이나 가족같은 당위적 우리성 관계, 불가분의 관계라는 상황적 관계 요인도 감정적 요인 못지 않게 중요하다(김지영, 1999; 최상진·김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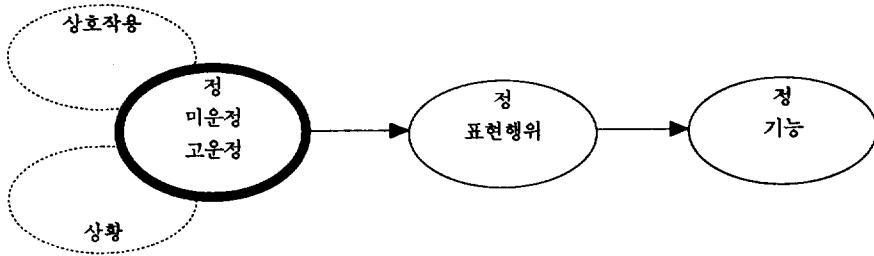


그림 1. 정 의 구조, 표현행위, 기능간의 관계

김기범, 1999a; Choi, Kim, & Kim, 1999).

정은 정관계에 있는 사람들 상호간에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고, 가족같은 푸근함을 나누는 긍정적 측면 못지 않게 갈등과 반목, 오해, 미움의 부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의식과 정서, 생활에서 행위의 가장 중요한 동기이자 관계를 움직이는 동력 원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힘 없이 유통, 전파, 전수 된다. 본 논문에서는 서로 모순관계인 것처럼 보이는 고운정과 미운정이 함께 공존하며 고운정과 미운정이 왜 두렵고 깊은 정으로 체험되는 가에 대한 문화심리 학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예를 들어, Bruner(1990), Vygotsky(1978)의 입장에서). 이러한 분석을 위해 정 의 심리적 구조, 정 의 표현행위(예를 들어, Cultural-Historical Activity Theory의 Cole(1996); Activity Theory의 Leontiev(1981), Ratner(1997), Wertsch, et al., (1995) 등) 및 정 의 심리-사회 기능적 측면(Harbermas, 1984 참조)을 분석하고 이를 미운정 고운정의 심리적 기제와 연계하여 정 의 역동을 살펴보았다.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정 의 측정모형을 밝히고 그러한 정을 나누는 구체적 행위와 한국인의 밀착된 우 리성 인간관계를 가능케 하는 정 의 기능은 무엇인지를 미운정 고운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들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목적이다.

방 법

본 연구는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는데, 첫 번째 연구는 개방형 질문지(open-ended questionnaire)를 통한 예비조사였다. 남, 녀 성인과 남, 녀 대학생 등 총

20명의 인터뷰와 문헌분석, 대학원생 3명의 집단토론 을 통해 만들어진 예비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모은 후,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본 연구자들과 대학원생 들이 질문에 응답한 내용들을 우선 같은 의미를 가진 응답들을 분류하고, 다음으로 이러한 응답들을 상위 의 범주로 묶는 다단계 범주화의 내용분석을 실시하 였다.

1차 연구

조사대상자

경기도 소재 G 대학의 남, 녀 학생 120명과 서울 소재 C대학의 남, 녀 학생 50명 등, 총 170명의 피험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중 여학생은 90명, 남학 생은 80명이었다.

예비조사 결과 및 자료 분석

개방형 질문지는 1)어떤 대상에 대해 미운정과 고운정을 동시에 느끼는 경우, 2)미운정의 대상과 3)고운정의 대상이 분리된 경우, 4)미운정과 고운정을 동 시에 느끼는 경우에도 제 3자적 입장에서 자신이 체 외된 경우와 당사자입장에서 자신이 직접 느끼는 경 우를 분리, 총 네 개의 차원으로 제시했다.

자료 분석은 일차적으로 같은 낱말이나 비슷한 단 어가 들어간 응답끼리 묶고, 이차적으로 의미나 내용 이 유사한 응답을 범주로 묶었다. 최종적으로는 기존 의 정 연구가 가지는 결과들을 참고로 상위의 범주를 구성하였다. 아래의 결과는 상위의 범주만을 정리하 여 제시한 것이고, 질문이나 응답내용이 비슷한 경우 는 이를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1. 미운정 고운정의 대상

- 1) 가족: 엄마, 아빠, 형제 자매, 조부모 등
- 2) 수평적 관계: 연인, 동성친구, 이성친구, 이웃 등
- 3) 수직적 관계: 선생님, 선배, 후배, 고참, 졸업 등
- 4) 기타: 라이벌, 친척, 친구의 애인 등

가장 많은 응답은 가족, 특히 부부관계였는데 이것은 기존의 최상진 등(1990, 1997b)의 연구에서 정 관계의 원형이 가족관계라는 주장을 감안할 때 미운정 고운정의 대상도 가족이 대부분이고, 그 외 연인, 친구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2. 미운정 고운정이 든 이유나 상황

미운정 고운정이 드는 이유와 상황을 묻는 질문에서의 응답은 당사자적 입장과 제 3자적 입장이 대부분 비슷하여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 번째 싸움- 화해 범주는 미운정 고운정이 싸우고 미워하다가도 다시 풀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는 가운데 형성된다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의 반복은 자연 긴 시간과 잦은 접촉을 요하므로 기존의 정 연구에서 정 드는 조건으로 나타난 동거성, 역사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러한 동거 역사성의 밑바닥에는 아껴주고 이해해주는 다정성과 허물없음성이 싸움과 갈등의 사이 사이에서 관계를 유지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 1) 싸움- 화해 범주: 싸우다가도 금방 화해하고 친하게 지낸다
- 2) 동거- 역사성 범주: 같이 생활하는 시간이 많거나 동고동락 할 때
- 3) 다정성- 허물없음 범주: 서로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알게 되었을 때
- 4) 관계 유지성 범주: 헤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 5) 정 지향성 범주: 미워서 싫을 때도 있지만, 없으면 왠지 허전하고 찾을 때

관계 유지성은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 만남을 피할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즉 싫어도 안 볼 수 없고, 혈연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미운정 고운

정이 들을 말한다. 정 지향성 범주는 헤어질 수 있는 관계이고 헤어지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그간 쌓인 정 감정을 의식하고, 둘 사이의 역사성에 비중을 두어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경우 고운정에 미운정이 든다고 응답한 범주이다.

그밖에 미운정 고운정이 든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과 미운정 고운정 든 사람의 행동적, 성격적 특성, 그리고 미운정 고운정이 든 사람이 보고 싶은 경우 및 미운정 고운정이 든 사람에게 정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 미운정 고운정이 든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

- 1) 감사하는 마음
- 2) 편안함
- 3) 사랑하고 좋아함
- 4) 신뢰와 믿음
- 5) 싫지만 정 때문에
- 6) 양가적 감정
- 7) 좋지만 그리 편하지만은 않다

4. 미운정 고운정 든 사람의 특성

- 1) 성격, 행동 등 모든 면에서 좋은 사람이다
- 2) 도움을 주거나 잘해준다
- 3) 솔직하고 편하게 대한다
- 4) 나와 비슷한 성격이다
- 5)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다
- 6) 특징이 없다

5. 미운정 고운정 든 사람이 보고싶은 경우

- 1) 힘들 때(우울하거나 외로울 때, 슬플 때)
- 2) 그 사람이 나와야 할 자리에 보이지 않을 때
- 3) 추억이 생각날 때
- 4) 항상 보고싶다
- 5) 기쁠 때

6. 미운정 고운정 든 사람이 정을 표시하는 방법

- 1) 따뜻하고 배려하는 말과 행동
- 2) 통명스러운 말과 행동

- 3) 편지나 전화연락을 자주한다
- 4) 표현을 잘하지 못한다
- 5)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말과 행동
- 6) 예의있게 존중해 준다
- 7) 편안하게 해준다.

2차 연구

2차 연구에서는 1차 연구를 통해 분석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제작하여, 대학생 피험자와 일반성인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2차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미운정 고운정이 드는 상황, 정을 표현하는 방법 및 미운정 고운정의 기능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 하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조사대상자

피험자는 서울에 소재한 C대학의 남, 녀 학생 200명과 서울에 거주하는 71명의 성인 등 총 271명이다. 피험자의 연령범위는 18세에서 48세이며 학력은 고졸에서 대학원졸 까지 분포되어 있다.

자료분석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확정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이론적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1) 정의 구조: 미운정 고운정의 구조에 관한 설문지는 총 4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40개의 문항을 요인분석하였으며 회전은 Varimax를 사용했고, 연구자들의 의도에 의해 요인의 수를 5개로 고정시켜 분석하였다(표 2 참조).

우리성 일체감과 상대에 대한 인간적 이해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은 .70 이상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첫 번째 요인인 **아껴주고 믿어주기**(설명변량 22.64%)를 구성하는 문항들은 서로를 아껴줄 때(문항 20),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낄 때(문항 25), 서로를 이해하고 잘 알게 되었을 때(문항 12), 서로 신뢰할 때(문항 24), 따뜻하게 대할 때(문항 39), 슬픔을 함께 나눌 때(문항 18) 등으로 기존의 정 연구에서 나타난 친밀성이 함축된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인 **격의 없이 대하기**(설명변량 14.74%)를 구성하는 문항은 나에게 피해를 줄 때(문항 44), 상대가 차갑게 대할 때(문항 37), 상대가 이기적일 때(문항 26), 상대가 함부로 말할 때(문항 36), 상대가 잘난 척을 할 때(문항 21) 등으로 정관계에 있으면서 자신에게 미운 행동을 하는 경우들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요인인 **우리성 - 일체감**(설명변량 5.08%)을 구성하는 문항들은 헤어지고 싶어도 차마 헤어질 수 없다고 생각될 때(문항 8), 상대와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될 때(문항 6), 알뜰게 행동하지만 나에게 대한 그 사람의 본심을 알 때(문항 7), 없으면 허전하고 보고 싶을 때(문항 4) 등으로 상대에 대한 미움이나 서운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네 번째 요인인 **동거 - 역사성**(설명변량 4.40%)을 구성하는 문항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경우(문항 3)와 오랫동안 같이 생활한 경우(문항 2)였다. 마지막으로, **상대에 대한 인간적 이해**(설명변량 4.38%)를 구성하는 문항은 서로의 장단점을 알게 되었을 때(문항 35), 상대에게서 섭섭함을 느낄 때(문항 33), 서로 싸우고 화해할 때(문항 1)로 이는 서로의 장점 뿐 아니라 단점까지도 다 보여줌으로써 미운정 고운정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정의 표현행위: 두 번째로, 미운정 고운정의 표현행위는 Varimax회전으로 요인 수를 3개로 고정시켜 분석하였다. 세 개의 요인 중에 첫 번째 요인인 **아껴주는 행위**(요인 1, 설명변량 28.68%)는 '아껴준다',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준다', '배려해준다', '잘 이해해준다', '칭찬한다', '나를 존중해준다', '힘들 때 위로해 준다', '따뜻하게 대한다', '편안하게 대해준다' 등 정이 든 상대에 대해 혹은 상대에 대해 정이 들기 위한 표현 방법으로 아끼고 배려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 두 번째 요인을 연구자들은 **격의 없는 행위**(요인 2, 설명변량 12.78%)로 명명하였는데, '내가 싫어하는 말만 한다', '말투와 행동이 험악하다', '알뜰게 행동한다', '냉정하게 대한다', '통명스럽게 이야기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정에 관한 연구들은 표현행위에 있어 아껴

표 2. 정의 구조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문	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아껴주고 믿어주기						
20.	서로 아껴줄 때	.80				
25.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낄 때	.77				
12.	서로를 이해하고 잘 알게 되었을 때	.77				
24.	서로 신뢰할 때	.76				
39.	따뜻하게 대할 때	.75				
18.	서로에게 솔직하게 대할 때	.75				
19.	친밀할 때	.73				
38.	나에게 위로나 격려를 할 때	.73				
40.	서로 맘이 맞는 경우	.72				
14.	즐거운 일을 같이 할 때	.69				
32.	서로를 소중하게 여길 때	.68				
10.	슬픔을 함께 나눌 때	.68				
17.	서로를 사랑할 때	.66				
34.	서로 좋아하는 경우	.66				
11.	허물없이 상대를 대할 때	.65				
22.	도움을 줄 때	.56				
9.	힘든 일을 함께 겪을 때	.54				
41.	자주 연락할 때	.51				
격의없이 대하기						
26.	상대가 이기적일 때		.78			
37.	상대가 차갑게 대할 때		.77			
36.	상대가 함부로 말할 때		.75			
44.	나에게 피해를 줄 때		.75			
21.	상대가 잘난 척을 할 때		.74			
30.	상대에게 실망할 때		.71			
29.	성가시게 굴 때		.68			
27.	서로 다툼 때		.67			
23.	사사건건 참견할 때		.66			
5.	가까운 관계에 있으면서도 나를 무시할 때		.61			
15.	서로 경쟁관계에 있을 때		.53			
우리성 - 일체감						
8.	헤어지고 싶어도 차마 헤어질 수 없다고 생각될 때			.69		
6.	상대와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될 때			.68		
7.	알뜰하게 행동하지만 나에 대한 그 사람의 본심을 알 때			.60		
4.	없으면 허전하고 보고싶을 때			.40		
동거역사성						
3.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경우				.84	
2.	오랫동안 같이 생활한 경우				.81	
상대에 대한 인간적 이해						
35.	서로의 장단점을 알게 되었을 때					.65
33.	상대에게 섭섭함을 느낄 때					.49
1.	서로 싸우고 화해할 때					.46
설명변량(%)		22.64	14.74	5.08	4.40	4.38
α 계수		.94	.89	.57	.70	.42

주거나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등의 긍정적 측면의 행위들이 정을 생성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미운정 고운정은 두 번째 요인의 문항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에게 혹은 상대방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행위, 예를 들면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한다거나 알뜰하게 행동하는 등의 행위를 해도 정이 들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이 두 요인은 .77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나, 세 번째 요인인 **본심적 행위**(요인 3, 설명변량 7.74%)는 ‘형식적으로 말하고 예의를 차린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5의 비교적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표 3참조).

표 3. 정의 표현행위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아껴주는 행위			
22.아껴준다	.77		
15.관심을 가지고 걱정해준다	.76		
7.배려해준다	.74		
16.잘 이해해준다	.70		
25.칭찬한다	.69		
24.나를 존중해준다	.69		
10.힘들 때 위로해 준다	.68		
1.따뜻하게 대한다	.67		
6.편안하게 대해준다	.67		
12.도움을 준다	.65		
19.친근하게 말한다	.64		
11.미안할 정도로 잘해준다	.60		
3.편지나 전화연락을 자주한다	.58		
23.스킨십을 한다	.56		
2.선물을 준다	.53		
14.직설적으로 애정을 표현한다	.49		
격의없는 행위			
4.통명스럽게 이야기 한다	.79		
5.내가 싫어하는 말만 한다	.76		
17.말투와 행동이 험악하다	.70		
18.알뜰하게 행동한다	.66		
20.냉정하게 대한다	.51		
본심적 행위			
8.형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한다	.69		
21.예의를 차린다	.66		
13.말과 행동이 위선적이다	.60		
설명변량	28.68	12.78	7.74
α 계수	.91	.77	.45

3) 정의 기능: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기능에 대한 요인분석은 요인의 수를 3개로 고정시켜 회전시켰다. 첫 번째 요인은 **든든하고 의지가 됨**(요인1, 설명변량 24.50%)이었으며, 두 번째 요인인 **이성적 판단의 방해**(요인2, 설명변량 12.57%)는 정관계에 있는 쌍방이 때로 행할 수 있는 비이성적 행위의 결과로 정의 역기능이라 볼 수 있다.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체면을 차리지 않는 **무거리감**(요인 3, 설명변량 12.33%)이 마지막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이 들므로 해서 심리적으로 든든함을 느끼고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 반면에, 정으로 인해 공(公)과 사(私)를 구분해야하는 때에도 사적인 것에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정이 들므로 해서 정든 상대 앞에서 체면을 차리거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말과 행동을 거리낌없이 할 수 있음을 정관계의 사람들이 우리성-일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형식성과 격식을 떠나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정이고 정은 그러한 격식이나 형식을 차릴 필요가 없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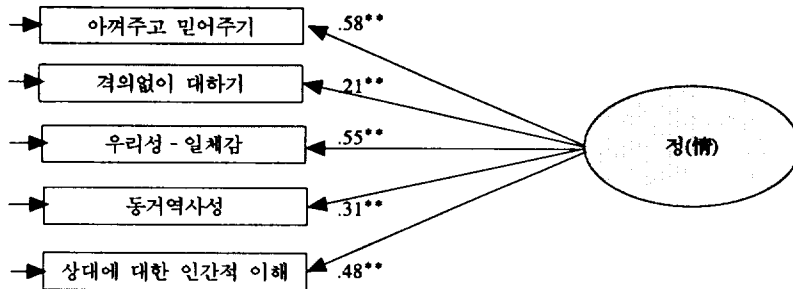
1) 측정모델의 검증

미운정 고운정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확정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델은 아껴주고 믿어주기, 격의없이 대하기, 상대에 대한 인간적 이해, 우리성-일체감, 동거역사성이 정을 구성하는 요인이라고 가정했다. 측정모델에서 정의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아껴주고 믿어주기에 1.0의 고정치를 할당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측정모델의 χ^2 값이 21.07로 자유도 5에 $p=.001$ 이었고, 나머지 부합도 지수들은 Goodness of Fit Index(GFI)=.97,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AGFI)=.91, Root Mean Square Residual(RMR)=.06, Normed Fit Index(NFI)=.79, Non-Normed Fit Index(NNFI)=.65, Comparative Fit Index(CFI)=.93으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순목, 1990; 양병화, 1998), 이를 수정지수에 따

표 4. 정의 기능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튼튼하고 의지가 됨			
25.내 마음을 이해해준다	.80		
24.마음이 든든하다	.80		
23.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76		
11.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다	.76		
17.위로, 격려를 받을 수 있다	.69		
6.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68		
8.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다	.67		
18.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다	.65		
20.허전함을 채울 수 있다	.62		
12.선물이나 기념일을 잘 챙겨준다	.60		
26.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	.55		
7.서로의 단점을 말해줄 수 있다	.54		
22.상대에게 화가 나도 참을 수 있다	.41		
4.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다	.40		
이성적 판단 방해			
15.귀찮게 할 수 있다		.81	
14.간섭을 받을 수 있다		.81	
16.듣기 싫은 충고를 할 수 있다		.65	
19.상대에게 신경을 쓰므로 피곤할 수 있다		.62	
13.말을 함부로 하게 된다		.57	
2.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기 어렵다		.41	
무거리감			
9.채면을 차릴 필요가 없다			.84
10.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81
5.예의와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다			.74
1.말과 행동을 거리낌없이 할 수 있다			.62
설명변량	24.50	12.57	12.33
α 계수	.90	.76	.82



** p < .01

그림 2. 정의 구조(CFA)

라 수정하였더니, χ^2 값이 10.01로 자유도 4에 $p=.04$ 이고, Goodness of Fit Index(GFI)=.985,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AGFI)=.94, Root Mean Square Residual(RMR)=.045, Normed Fit Index(NFI)=.90, Non-Normed Fit Index(NNFI)=.84, Comparative Fit Index(CFI)=.94로 나타났다.

위계적 모델 검증 즉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해 본 결과, 수정 전의 모델과 수정 후의 모델의 자유도와 χ^2 값의 차이는 1에 11.06으로 이는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수정 전의 모델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위계적 모델 검증 즉 χ^2 차이 검증의 한 방법으로 수정전의 모델과 수정 이후 모델을 비교해서 어떤 모델이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수정 전의 모델에서 수정 후 모델의 자유도와 카이 자승을 뺀 값이 유의미하다면 이는 수정후의 모델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유의미하지 않다면 이는 두 모델간의 합치도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절약의 원칙(principle of parsimony)에 따라 계수가 더 적은 모형이 선호되는 것이다 (박광배,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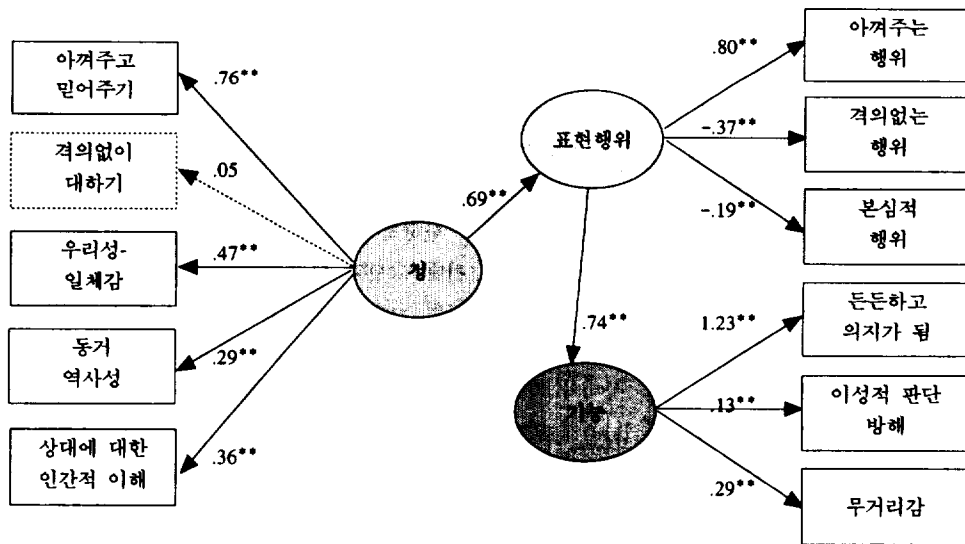
정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인은 '아껴주고 믿어주기'로 Lambda X의 값은 .58($t=6.75$, $p<.01$)로 나타났고,

두 번째 요인인 '격의없이 대하기'는 그 계수 값이 .21($t=2.67$, $p<.01$)이었고, 다음으로 '우리성 일체감'은 .55($t=6.55$, $p<.01$)였다. 그리고 네 번째 구성요인인 '동거역사성'은 .31($t=3.94$, $p<.01$)로 나타났고 '상대에 대한 인간적 이해'의 Lambda X 값은 .48($t=5.89$, $p<.01$)로 나타났다. 모든 구성요인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그 중 정의 핵심요소인 아껴주고 믿어주기와 우리성 일체감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 모델 검증

본 연구자들은 정과 정을 나누는 구체적 표현 행위, 정의 기능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고자 모델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림 3>에 제시된 구조 방정식 모델을 검증한 결과, df가 42에 χ^2 값이 233.94로 $p=.00$ 이었고, 전반적인 부합도 지수는 GFI=0.85, AGFI=0.77, NFI=0.66, NNFI=0.60, RMR=0.12, CFI=0.70로 나타났는 바, 이를 수정지수에 따라 수정하였더니 $df=37$, $\chi^2=118.07$ 로 $p=.00$, 모델 부합도 지수는 GFI=0.93, AGFI=0.87, NFI=0.83, NNFI=0.81, RMR=0.08, CFI=0.87로 나타났다. 모델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해 본 결과, 자유도 5에 χ^2 값이 115.87로 $p=.01$



** $p < .01$

그림 3. 정의 구조, 표현행위, 기능간의 구조방정식 모델

에서 유의미하지 않아 수정 전의 모델이 더 선호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의 구성개념(잠재변인)은 표현행위로의 $\gamma = .69(t=5.97, p<.01)$, 표현행위에서 정의 기능으로의 $\beta = .74(t=3.79, p<.01)$ 로 모두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측정 모델과는 달리 정의의 구조와 행위 및 기능간의 공변량 구조 분석에서는 정의의 구성 요인 중 두 번째 변인인 '격의없이 대하기'의 Lambda X 값이 $.05(t=.643)$ 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제적인 정의의 표현행위에 있어서 격의없이 대하는 행위 즉 통명스럽게 이야기하거나, 싫어하는 말만 하고, 알뜰하게 행동하거나, 냉정하게 대할 때에도 정의 들긴 하지만 이것들이 실제로 표현되거나 실천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표현행위의 Lambda Y 값 중 '격의없는 행위'와 '본심적 행위'는 구성개념인 표현행위와 부적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격의 없는 행위의 $\text{Lambda Y} = -.37, t=-5.44, p<.01$; 본심적 행위의 $\text{Lambda Y} = -.19, t=2.97, p<.01$) 이는 표현행위의 세 변인들이 서로 부적인 상관이 있기 때문이다.

정의 기능에 있어서는 정의 들면 든든하고 의지가 된다는 기능적 측면이 $\text{Lambda Y} = 1.23, t=4.39, p<.01$ 로 나타났고, 두 번째로 정의의 부정적 기능인 이성적 판단방해는 $.13(t=2.80, p<.01)$ 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상대와의 무거리감은 $.29(t=6.13, p<.012)$ 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결과는 정의 갖는 역기능적 측면인데, 정 때문에 이성적 판단을 하는데 방해받는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은 그 순기능적 측면으로 든든하고 의지가 되며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편하다는 것이다.

요약해보면, 이러한 결과는 정의의 구성요인 중 격의없이 대하기 즉 '상대가 이기적일 때', '상대가 차갑게 대할 때', '상대가 함부로 말할 때', '나에게 피해를 줄 때', '상대가 잘난 척을 할 때' 등에서는 비록 정을 들 수 있으나 행위와 기능과의 관계에서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현행위 중 격의없는 행위와 본심적 행위는 정을 표현하는 행위 중 부적인 측

면의 행위들로서, 정 표현행위의 구성개념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고 실제로도 부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정의 구성과 그 행위 및 기능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껴주는 마음과 행위를 통해 든든함과 서로에게 의지가 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과 그 표현행위 및 기능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정의 기능으로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indirect effect of KSI on ETA)를 보면 그 계수 값이 $.51(t=3.58, p<.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정의 표현행위는 각각의 기능에 간접적인 효과(indirect effect of ETA on Y)를 나타내고 있는 바, 먼저 든든하고 의지가 되는 첫 번째 기능에는 $.90(t=9.70, p<.01)$, 두 번째 기능인 이성적 판단방해에는 $.09(t=2.17, p<.05)$, 마지막으로 무거리감 기능에는 $.20(t=2.84, p<.01)$ 로 모두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간접효과는 Cole(1996)이나 Leontiev(1981), Wertsch(1995) 등의 Activity Theory를 증명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정심리의 역동성을 미운정 고운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했다. 즉 고대의 문헌 속에서 현대 한국에 관한 국내외의 문헌에 이르기까지 역사성을 지니고 문화적으로 전유, 변화된 정의 지금의 현실 속에서 공유되고 작동되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정의의 구성요소를 밝히고 정의의 구조와 행위, 기능간 구조적 관계를 설정했다.

한국적 광고로 규정되는 많은 광고들은 어머니나 시골 고향의 영상을 잘 표현한 것들이다(최상진·유승엽, 1996b). 모기업의 광고나 한국 굴지의 전자회사에서 자사 이미지를 홍보할 때도 '누구나 인터넷으로 정을 나누는 세상',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광고 문안을 사용한다. 정의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거나 정의 이미지를 조장하는 많은 광고들은 시청자들의 마음에 호소해 푸근하고 따뜻하며 그리운 감정을 불러 일으켜 상품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게 하므로 얼핏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정과 인터넷, 전자회사를 하나로 묶은

광고가 호소력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김용석, 1999). 이렇듯 한국인의 정서와 마음에 깊이 자리한 이미지로서의 정은 시골 고향과 같이 순수하고 어머니와 같이 푸근할 수 있으나, 서로 몸을 부딪히며 살아야하는 복잡한 사람살이의 관계에서 실제 경험되는 정이란 마냥 따뜻하고 순수한 것이 아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정이란 때로 서로를 아프게 할 수 있고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를 상처 낼 수 있으며 때로 귀찮고 피곤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정이 지향하는 바나, 정의 핵으로 자리한 것은 서로가 맹목적으로 아껴주고 이해타산을 떠나 돌봐주고 생각해주는 순수한 마음으로서의 정일 것이다.

한국인들은 집단을 떠난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자기를 불완전하다고 느낀다. 따라서 항상 가족 관계, 친구관계, 부부관계, 선후배관계의 틀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인이 self가 약하거나 서구인과 같은 독립된 독특한 self대신에 사회-공동체 가치적 self를 지향한다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다(최상진·김기범, 1999b). 따라서 시어머니가 밋고 남편이 야속하고, 형제 자매가 꼴보기 싫어도 심리적, 물리적으로 당위적 우리성 관계를 저버리는 것은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것이고, 이 같은 심적 부담을 불러오는 행위는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기시되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정을 구성하는 요소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 뿐 아니라 우리성 일체감의 불가분 관계에 대한 인식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밋고 싫어도 헤어질 수 없고, 그래도 남보다는 나를 이해해주고 생각해주므로 편하고, 든든하고 의지가 되는 우리편이며, 공동의 운명으로 묶인 관계의 사람들이라는 감정과 인지가 오랜 시간과 공간의 공유에 의해 녹녹히 녹았다가 뒤늦게 자각되는 것이 바로 정이다.

오랜 세월 자신도 모르게 정을 쌓았다가 뒤늦게 이를 깨닫게 되는 것이 정인 만큼 정표현 행위도 지극히 모호하고 다양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아껴주고 생각해 준다는 마음의 표현이어야 하는데 표현의 주된 매개는 구체적 행동이라기 보다 '마음 써주기'로, 그것을 표출하고 감지하는 일은 정 관계의 당사자

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피험자들에게 정표현 행위를 기술하라고 하면 배려해준다, 아껴준다,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준다, 따뜻하게 대한다는 등의 '마음 써주기'가 주를 이룬다. 즉 서로가 서로를 위해 마음 써주는 것을 느끼면서 고마워하고 애뜻해하는 것이 정표현 행위의 교환 양식이다. 따라서 미운 행동이라 지각되는 행동도 자신에 대한 상대의 마음 써주기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통명스러운 말투, 알미운 행동, 격의 없는 우리 사이에서 형식과 예의를 차리고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모두 섭섭함과 서운함을 야기하는 미운 행동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 행동들은 미운 행동과 고운 행동으로 분리되지 않는데, 이것은 미운 행동이 고운 행동의 갈피 갈피에 끼여져 있으므로 정관계의 당사자들은 사소한 언행에 섭섭해하면서도 그것이 상대의 본심이 아님을 미루어 짐작하기 때문이다.

미운정 고운정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정의 구성요소는 정표현 행위를 거쳐서 정의 기능으로 결과한다. 정의 기능에서 이성적 판단의 방해라는 요인은 한국인들이 정이 가지는 부정 기능으로 공적인 일에 정리(情理)가 끼어들어 사리(事理)를 흐리게 할 수 있음을 뚜렷이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지나친 친절-밀착으로 인해 사적 생활의 침해라는 측면도 부정적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 상대의 의도에 상관없이 간섭받고 신경 써야하는 당사자는 정관계를 귀찮고, 피곤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는 순수한 마음으로서의 정이 그 의도성과는 상관없이 현실적 정관계에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왜곡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정의 한 구성요인인 격의 없이 대하기는 구조 방정식 모델에서 행위와 결과에 유의미하지 않는 관계를 나타냈다. 이것은 피해를 주고, 차갑게 대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미운정의 측면이 정의 구성요소는 될 수 있으나 행위와 기능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격의 없이 대하기는 실제,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태도와 행동들이다. 그것이 일정한 시간을 거쳐 정관계의 역사를 회고하는 감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미운정이라

는 하나의 정으로 승화되었을 뿐, 행위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즉 이것은 정이 부정적 상호 작용 속에서도 뿔레야 뿔 수 없는 우리성 관계를 바탕으로 하며, 미운정이란 결과적인 감정이고 의도성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 아닌 만큼 행위와 기능에 대해 무관함을 의미한다.

또한 정이 기능으로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정을 느끼는 대상의 존재만으로도 한국인들은 불안과 고독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의지처(依支處)를 가졌다고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존재에 대한 불편감도 동시에 느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인에게 있어 정이란 친밀하고 친근한, 시공이 밀착된 우리편 사이에서 서로 잘해주고, 신경 써주고, 아껴주기도 하지만 너무나 편하고 가까워서 때론 막대하고, 싸우고, 서운해함으로써 결과되는 미운정 고운정의 결합체이다. 한국인의 정관계에서 고운정의 한 편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완전치 못한 정이고 미운정 고운정 다 든 상대보다 편하지 못하며, 상황과 여건에 의해 쉽게 '떨어질 수 있는 정'인 것이다. 따라서 미운정 고운정은 하나의 정 개념으로 구성되어 독특한 표현 행위를 거쳐 기능으로 결과 가능한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용석(1999). 대한민국 국민과자, 대한민국 대표캠페인 - 오리온 초코파이 정(情). *Cheil Communication*, 10월호, 64-68.

김지영(1999). 정의 구조, 행위, 기능간의 관계성 탐색: 미운정 고운정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박광배(1999). 다변량 분석의 기초. 미출판 책.

양병화(1998).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이규태(1990). 한국인의 의식구조. 서울: 신원문화사

이순목(1990). 공변량 구조분석. 서울: 성원사.

최상진(1993). 한일 우리의식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연차 학술대회*.

최상진(1997b). 한국인의 심리특성. *한국심리학회지(편)*,

현대심리학의 이해 제14장 (pp. 695-766). 서울: 학문사.

최상진(1999c). 한국인의 마음. 최상진·윤호균·한덕웅·조공호·이수원(공저), *동양심리학: 서구심리학에 대한 대안 모색* (pp. 377-479). 서울: 지식산업사.

최상진·김기범(1999b). 한국인의 self의 특성: 서구의 self 개념과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75-292.

최상진·김기범(1999c). 한국인의 심정심리: 심정의 성격, 발생과정, 교류양식 및 형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8(1), 1-16.

최상진·김지영·김기범(1999a). 미운정 고운정의 심리적 구조, 표현행위 및 기능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최상진·김의철·유승엽·이장주(1997). 한국인의 정 표상.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553-575.

최상진·박수현(1990). '우리성'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69-78.

최상진·유승엽(1996b). 문화심리적 측면에서 본 한국적 광고: 그 이론적 배경과 방법론적 탐색.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201-214.

최상진·이장주(1999). 정의 심리적 구조와 사회-문화적 기능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219-234.

최상진·최수향(1990). 정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1-9.

한국갤럽(1998). 97 제15대 대통령선거 투표형태. 서울: 한국갤럽.

Bruner, J. S.(1990). *Acts of meaning*. MA: Harvard University Press.

Choi, S. C.(1998). The third-person-psychology and the first-person psychology: Two perspectives on human relations.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25, 239-264.

Choi, S. C., & Choi, S-H.(1994). We-ness: A Korean

- discourse of collectivism. In G. Yoon, & S. C. Choi (Eds.), *Psychology of the Korean people: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pp. 57-84). Seoul: Dong-A Publishing & Printing Co., Ltd.
- Choi, S. C., & Kim, K.(1999a). The ShimCheong(心情) therapy for Koreans: A formulation of an indigenous cultural approach. *Paper presented at the 2nd World Congress of the World Council for Psychotherapy, Vienna, July 4-8, Austria.*
- Choi, S. C., & Kim, K.(1999b). Shimcheong: The key concept for understanding Koreans' mind. *Paper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August 4-7, Taipei, Taiwan.*
- Choi, S. C., & Kim, J-Y, & Kim, K.(1999). Sweet Cheong and hateful Cheong. *Paper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August 4-7, Taipei, Taiwan.*
- Cole, M.(1996). *Cultural psychology: A once and future disciplin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ergen, K. J.(1997). *Realities and relationships: Soundings in social construc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abermas, J.(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1, Reason and the rationalization of society* (T. McCarthy, Trans.) Boston: Beacon.
- Harre, R.(1998). Emotion across cultures. *Innovation, 11(1)*, 43-52.
- Leontiev, A. N.(1981). The problem of activity in psychology. In J. V. Wertsch (Ed.), *The concept of activity in Soviet psychology* (pp. 37-71). NY: Sharpe.
- Ratner, C.(1997). *Cultural psychology and qualitative methodology: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siderations*. NY: Plenum.
- Vygotsky, L. S.(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ertsch, J. V., Del Rio, P., & Alvarez, A.(1995). *Sociocultural study of mind*.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heong(情), and Its Actions and Functions

Sang-Chin Choi, Ji-Young Kim, and Kibum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According to past scholars and researchers the concept and phenomena of Cheong(情) is the most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ns interpersonal relationship. Past studies have examined the positive and simplistic aspects of Cheong(情), which is defined as uncalculating, self-sacrificing and unconditional support for a long period of time within we-ness relationship.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further examine the complex and dynamic concept, expressive behaviours of Cheong, and function of Cheong within the we-n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 More specifically, the focus of this present paper is to examine the psychological dynamics of ko-un(sweet) and mi-un(hateful) Cheong. According to results by listrel, Cheong has significant effects on expressive behaviors and the expressive behaviors of Cheong also has significant effect on function of Cheong.